

정책자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1992. 1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1992. 1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文

지난 12년간 집권해 오던 美共和黨 정권이 막을 내리고 클린턴 民主黨 후보가 새대통령으로 등장함으로써 美國경제는 새로운 變化의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오랜 不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美國경제를 우려한 유권자들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클린턴 당선자 個人의 政治철학과 黨의 政綱정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래될 미국 경제정책은 무엇보다도 재정적자, 높은 실업, 저성장에 허덕이는 미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단기 경제 부양책이 핵심을 이룰 것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인 미국의 경제회복은 韓國의 輸出과 成長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클린턴의 國內經濟 政策이 효과를 나타내어 빠른 시일내에 正常成長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더욱 큰 관심사는 미국의 對外通商政策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미국의 對外政策은 전통적으로 연속성과 일관성을 重視함으로 부시행정부의 정책기조로부터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民主黨의 政綱정책, 클린턴후보의 유세연설내용, 그리고 클린턴 주변 참모들의 性向을 종합·분석함으로써 그의 對外政策方向을 가늠해 보는 것은 意味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本 研究院은 美國大選의 向背가 民主黨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일찌기 豫見하였다. 이에 따라 本 研究院의 美國經濟 擔當 전문가들이 꾸준히 클린턴의 경제관련 言行을 直·間接으로 追跡하여 왔으며 外誌에 나타나고 있는 그에 대한 해설기사도 광범위하게 蒐集하여 왔다.

이제 클린턴이 次期 美國大統領으로 확정된 時點에서 이를 정리하여 관심있는 인사들에게 신속히 배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小冊子를 엮어낸다.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1992년 11월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 次

序 文

1. 美國經濟의 現況·····	7
가. 늦어지는 美國의 景氣回復·····	7
나. 景氣浮揚效果가 적은 低金利政策·····	9
다. 막대한 美國의 財政赤字·····	10
라. 최근 증가세로 다시 反轉한 貿易赤字·····	10
2. 클린턴의 經濟政策 基調·····	13
가. 클린턴의 對內經濟政策·····	13
나. 클린턴의 對外經濟政策·····	15
다. 行政府의 改革·····	15
3. 公共投資 增大 및 民間投資 活性化 方案·····	17
가. 美國經濟의 再建을 위한 投資計劃·····	17
나. 근로자 및 가족위주의 제도정립을 위한 政策方案·····	20
다.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投資計劃·····	20
라.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政策方案·····	22
4. 財政赤字 縮小 方案·····	25
가. 政府 改革의 必要性·····	25
나. 國防費의 削減·····	26
다. 稅收의 增大·····	27
라. 政府部門에 있어서의 구체적 예산절감 方案·····	28
마. 向後의 財政赤字 縮小 展望·····	29

5. 對外經濟政策	33
가. 通商政策의 基調	33
나. 雙務的 通商壓力	33
다. 우루과이라운드	34
라. 北美自由貿易協定	35
마. 外國人投資 및 外國企業에 대한 稅務查察	35
바. 앞으로의 通商政策方向	36
6. 韓國經濟와의 關聯 事項	37
가. 公正貿易原則의 遵守	37
나. UR(우루과이라운드)관련 分野	37
다. 肯定的인 側面	38
7. 우리의 對應方案	39
가. 美 政權교체기 상황에 대한 理解	39
나. 民主黨政府의 經濟政策의 특징 감안	40
다. 韓·美間 通商懸案과 對應課題	41
라. 多者間 協商에 적극 參與	42
마. 對美經濟弘報 強化	42
바. 議會次元의 外交強化	43
사. 우리企業의 對應	43

附 錄

A : Bush와 Clinton의 經濟政策 比較	47
B : 豫想되는 閣僚의 名單 및 性向	52
C : 次期 美國大統領 Bill Clinton의 略歷	55
D : 次期 美國副統領 Albert Gore 2세의 略歷	57

1. 美國經濟의 現況

가. 늦어지는 美國의 景氣回復

금년 下半年부터는 건실한 회복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당초의 전망과는 달리 美國의 景氣回復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발표된 몇가지 經濟指標들도 올해의 景氣回復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미국의 금년 2/4分期와 3/4分期의 實質GDP成長率(前年同期比)은 비록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과거 미국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때의 평균적인 성장율에 크게 못미치는 1.6%와 1.9%에 각각 그쳐, 미국경제는 아직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에는 경기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는 景氣指標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 금년 9월의 産業生産增加率(전년동기비)은 0.2%로 금년 1월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消費者信賴度指數도 7월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表 1〉과 〈그림 1〉 참조)

〈表 1〉 美國의 主要 經濟指標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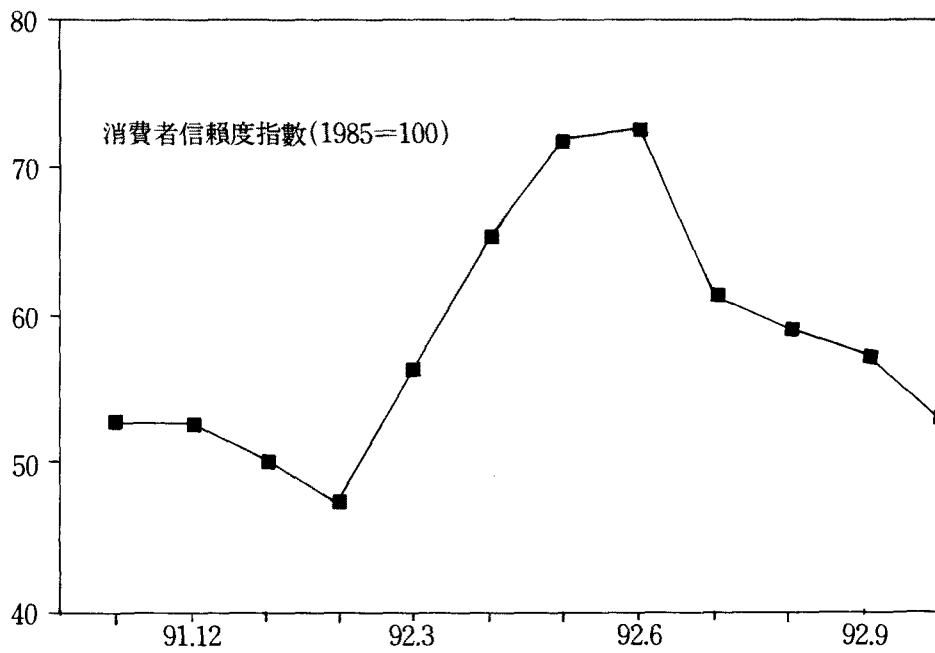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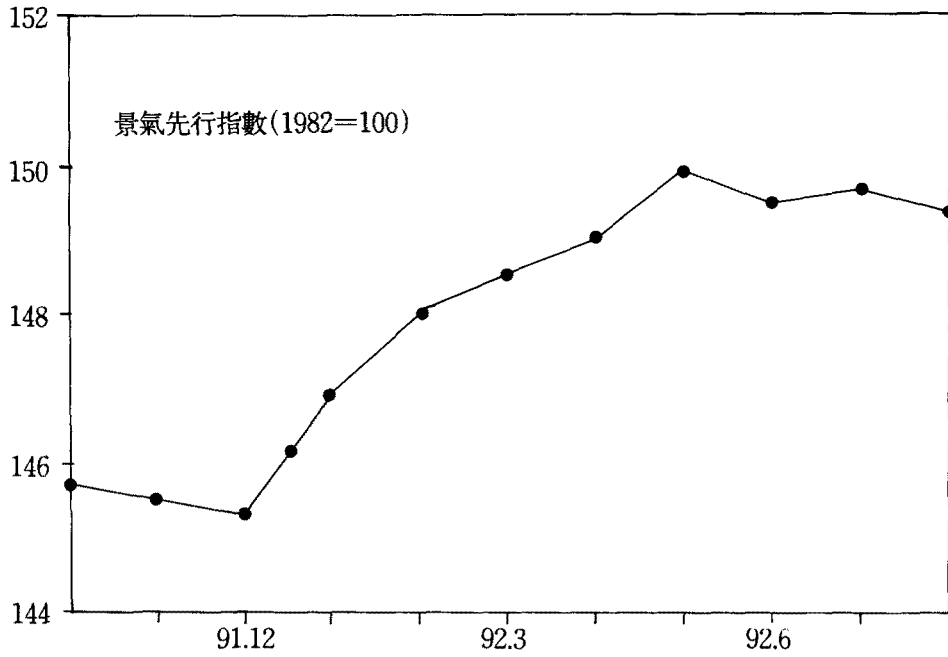
	實質 GNP 成長率*	産業生産 增加率*	消費者物價 上昇率*	失業率
1988	3.9	5.4	4.0	5.5
1989	2.5	2.5	4.8	5.3
1990	0.8	1.1	5.4	5.5
1991	-1.2	-1.9	4.2	6.7
1992 3월	1.6**	2.1	3.2	7.3
6월	1.6**	0.8	3.1	7.8
9월	1.9**	0.2	3.0	7.5

資料: Dept. of Commerce, *Commerce News*

註: *는 前年同期比 기준, **는 해당 月에 끝나는 分期기준임.

〈그림 1〉

美國 主要 景氣指標의 最近動向



미국의 失業率은 9월 현재 7.5%로 지난 6월에 비해서 약간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며, 그나마 耐久財部門에 있어서의 고용은 계속 감소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 失業問題는 미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나. 景氣浮揚效果가 적은 低金利政策

이러한 국내경제의 부진 속에서, 부시行政府는 국내경기회복을 위해 美聯準에 금리인하를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美聯準은 금리인하를 계속 단행하여 90년에 6.5%였던 公正割引率이 92년 10월에는 3%로 낮아졌고, 그 결과 주요 시중은행의 優待金利도 90년의 9.5%에서 6%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美聯準의 金利引下政策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본격적인 대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金融壓迫(credit crunch)이 지속되어, 景氣浮揚效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要因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기업들의 資金需要가 줄어들었다. 이는 현재의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고 앞으로도 金融壓迫現狀의 지속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雇傭抑制나 在庫減縮 등의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기업의 資金需要가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借入金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이 1986년의 稅制改革으로 폐지되자, 기업들은 금융기관 借入을 통한 資金調達(Debt-Financing)보다는 株式市場을 통한 資金調達(Equity-Financing)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脫負債化 현상으로 인하여 低金利政策의 投資促進效果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不動産價格의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채권이 부실화되고 은행들의 파

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위험도가 높은 대출은 꺼리고 있다. 또한 聯邦預金保險公社改善法(FDICIA)의 의회 통과 등으로 은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 은행들은 업무의 확대보다는 財務構造의 개선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다. 막대한 美國의 財政赤字

이와같이 金融政策의 경기회복효과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財政擴大政策이나 稅金引下政策이 景氣浮揚手段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聯邦財政赤字는 1986년 GNP의 5.2%를 頂点으로 그후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나 1992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서 91會計年度(90.10~91.9)중 GNP의 약 4.8%에 상당하는 약 2,700억 달러로 늘어난데 이어 92會計年度에는 약 2,900억 달러에 달하여, 재정적자의 축소는 美 行政府의 또하나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있다.(<表 2> 참조)

〈表 2〉 美國의 財政赤字 推移

(單位 : 億 달러)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財政赤字	-2,123	2,212	-1,498	-1,552	-1,535	-2,205	-2,687	-2,901

資料: US Government,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1992)

라. 최근 증가세로 다시 反轉한 貿易赤字

미국의 貿易收支赤字는 198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1991년에는 1984년 이후

처음으로 천억달러 미만의 무역적자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貿易收支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데, 92년도 2/4分期 貿易赤字는 209억달러로 이는 1/4分期의 147억달러에 비해 62억달러나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7월, 8월의 무역적자도 각각 78억달러, 90억달러에 달하여 무역적자가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表 3〉 참조)

이와 같은 최근의 貿易收支 악화는 8월을 제외하고는 輸出의 감소보다는 輸入의 증가에 의한 것이지만, 獨逸의 高金利政策에 의한 유럽의 경기부진과 멕시코의 高金利政策, 그리고 장기간의 「平成」景氣를 끝으로 침체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日本經濟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表 3〉 最近 美國의 貿易動向

(單位: 百萬 달러)

年 / 分期	輸 出	輸 入	貿易收支
1988	320,385	441,282	-120,897
1989	363,765	473,396	-109,631
1990	394,045	495,042	-100,997
1991	421,851	488,056	-66,205
1992 1/4분기	110,206	124,882	-14,676
2/4분기	110,289	131,221	-20,932

資料: Dept. of Commerce, *Highlights of U.S. Export and Import Trade* 및 *Commerce News*.



2. 클린턴의 經濟政策 基調

앞에서 본 미국경제의 현황이 시사하듯이, 현재 미국경제는 景氣回復, 生産性 향상을 통한 國際競爭力 提高라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 양극화 현상이라는 또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클린턴은 政策의 최우선순위를 經濟活性化에 두고, 「국민을 최우선으로(Putting People First)」라는 기치아래, 중산층과 일반서민을 겨냥하여 고용창출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經濟政策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여 미국경제번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유일한 방법은 公共 및 民間投資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연방정부는 향후 4년간 매년 500억 달러씩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聯邦支出을 삭감하고 기업의 탈세를 방지하며 최고 소득층에 대해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보다 엄격한 의료보험비용 절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3,000억 달러정도의 財源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財政赤字를 향후 4년 이내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그 이후로도 매년 감소시킬 계획이다.

가. 클린턴의 對內經濟政策

클린턴의 對內經濟政策의 구체적 계획으로는 公共投資擴大, 教育 및 福祉制度改革과 醫療保障制度 改善 등을 들 수 있다.

公共投資擴大

고용을 창출하고 軍需産業에 바탕을 둔 경제에서 民需産業에 바탕을 둔 경제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통신, 교통 및 환경체계 등의 社會間接資本施

設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보고, 향후 4년간 매년 200억 달러의 聯邦投資로 美國 再建基金(Rebuild America Fund)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과 경제개발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한 長期戰略으로서 새로운 환경기술을 개발하며, 또한 環境産業의 國際競爭力을 제고시켜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都市經濟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내부의 도로개선, 상하수도 시설 개수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敎育 및 福祉制度 改革

클린턴은 미국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고학력계층과 저학력계층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良質의 製造인력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미국경제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賃金水準이 10年 前에 세계 최고에서 현재는 세계 10위 정도로 떨어진 점을 들어, 敎育에 대한 投資擴大를 통해 미국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임으로써 高賃金-高技術의 경제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강화, 국가차원의 學力評價制度 도입 및 産學連繫過程 등의 敎育제도를 개선하고, 전국민이 대학교육비용을 融資받을 수 있게 하며 근로자들을 재교육시키는 등의 平生敎育政策을 立案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세금을 징수하고 가족휴가를 부여하여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保障制度가 생계유지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수당 수혜기간은 2년으로 제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醫療保障制度 改善

의료혜택제공에 드는 비용증가가 財政赤字 増大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보고 醫療保險業과 製藥業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의료비용의 상승을 엄격히 억제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행정의 效率을 높여서 적절한 비용의 質 좋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수혜범위를 전국민에게 확대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 클린턴의 對外經濟政策

클린턴의 對外經濟政策은 기본적으로 自由貿易主義를 표방하고 있으나,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장하는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公正貿易(Fair Trade)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해외시장확대에 의한 수출증대를 통해 국내 고용창출을 이룩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通商外交와 관련하여 클린턴行政府에서 가장 관심을 모을 새 제도는 이른바 「經濟安保委員會(Economic Security Council)」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國家安保委員會(National Security Council)와 비슷한 성격으로 설치되어 모든 對外經濟政策의 조정을 맡을 이 기구는 경제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겠다는 클린턴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行政府의 改革

한편, 클린턴은 10만명의 연방정부 인원을 감축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제거하며 특혜 및 로비활동을 제한하고 선거자금조달 및 관행들의 개선 등을 통한 行政府의 改革을 주장하고 있다.



3. 公共投資 増大 및 民間投資 活性化 方案

가. 美國經濟의 再建을 위한 投資計劃

클린턴의 國家經濟戰略은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企業을 創業하거나 美國人과 美國內의 公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업이 번영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경쟁력을 갖추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政府가 支援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셋째, 高所得者들에 대한 稅額公제를 중단하고,

둘째, 美國內 工場을 폐쇄하고 海外로 移住하는 企業에 대해서는 稅金惠澤을 中斷하며,

셋째, 高賃所得者들에 대한 稅額公제를 중단하고,

넷째, 美國內에서 번창하면서 稅法을 惡利用하는 外國企業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措置를 취할 것이다.

한편 수백만에 이르는 高賃金 고용을 창출하고 軍需産業 보다는 民需産業에 바탕을 둔 經濟構造로의 원활한 轉換을 도모하기 위하여 世界最高 水準의 通信, 交通 및 環境體制를 構築하는 등 美國經濟의 再建을 圖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美國再建基金(Rebuild America Fund)을 設立함으로써 향후 4년 동안 매년 200億달러의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1950年代 州間高速道路의 건설이 20년에 걸친 고속성장을 가져왔듯이 21세기를 향한 확고한 기반의 건설이 美國人을 다시 일하게 하고 경제성장을 가속시키게 될 것이다. 대규모의 예측 가능한 시장의 창출에 따라 민간기업의 投資가 活性化되고 高賃金 新規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投資의 重點分野는 다음의 4가지로 集約된다.

○ 交通 : 도로, 교량 및 철도의 보수, 主要都市와 商業中心地를 연결하는 高

速철도망의 건설, 主要道路의 수송능력, 속도와 효율을 增大시킬 수 있는 高速道路 기술의 개발, 첨단기술의 단거리 항공기의 개발 등을 포함한다.

○ 通信 : 2015년까지 각가정, 사업장, 연구소, 학교교실 및 도서관을 연결하는 國家情報網을 구축한다.

○ 環境 : 世界最高水準의 有毒폐기물의 再生 및 처리, 공기정화 및 정수 시스템의 開發, 새로운 무공해의 효율적인 에너지源의 開發 등을 포함한다.

○ 軍需産業 : 軍需産業의 民需産業으로의 轉換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支援한다. 美國經濟再建 事業에 入札한 회사들로 하여금 軍需産業의 노동력과 設備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한편 클린턴은 피폐해진 都市經濟의 活力을 回復하고 高所得 職場을 복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도로, 교량, 상하수도 시설 및 저소득층의 주택을 재건한다. 이같은 사업에 입찰하는 회사들로 하여금 공사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그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도록 한다.

둘째, 都心地의 低所得 企業家와 住宅保有者들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都市開發銀行 조직을 구축한다.

셋째, 10萬名에 달하는 신규경찰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범죄발생에 대응한다.

넷째, 침체된 低所得 都市地域에 事業地區를 設立하고 이 地域에서의 事業을 支援하기 위해서 稅金과 政府規制를 最少化한다. 대신 회사들은 이 지역 거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발전적인 地域再投資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金融梗塞을 완화하고 金融機關들의 地域社會에 대한 投資擴大를 유도한다.

10년전에는 美國의 1人當 資本投資가 日本의 그것보다 약 400달러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日本의 1人當 投資가 美國의 2배이상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美

國企業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國際競爭力을 回復하기 위해서는 民間投資를 대 폭적으로 擴大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美國內 新規工場設立이나 設備投資를 장려하기 위하여 投資稅額控除 制度를 실시한다.

둘째, 新規事業에 長期投資를 하는 모험심 있는 企業에 대해서는 50%의 稅金 減免을 실시함으로써 소규모 企業과 企業家를 지원한다.

셋째,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研究開發投資에 대한 稅額控除를 영구화한다.

넷째, 유전공학, 로봇트, 高速電算 및 環境 등 新産業分野에서의 혁신적인 製品과 技術의 開發을 위해서 業界와 學界를 망라하는 民間研究開發機構를 창설한다.

한편 輸出増大가 美國의 고용증대에 절대적(10億달러의 輸出増大가 2~3萬명의 고용창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美國 製品 및 서비스에 대한 海外市場의 開放을 積極적으로 推進한다. 유럽과 태평양 연안의 교역상대국들에게 조선이나 항공우주산업과 같은 핵심분야에서의 불공정한 무역보조금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수퍼 301” 무역법을 부활시키고 이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둘째,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美國商品에 대한 해외시장을 보다 擴大할 것이다.

셋째, 國家安保委員會(National Security Council)와 그 位相이 비슷한 經濟安保委員會(Economic Security Council)를 創設하여 對外經濟政策의 調整을 말도록 한다.

넷째, 美國貿易代表部の 관리들이 外國企業이나 政府의 로비에 의해 행동했던 폐단을 시정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일하도록 한다.

나. 근로자 및 가족위주의 제도정립을 위한 政策方案

오늘날 美國의 正規근로자들중 거의 20%가 그 家族이 빈곤수준을 벗어나기 위해 충분한 만큼의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클린턴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中産層 家庭의 經濟的 및 社會的 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政策을 推進하기로 하였다.

우선 근로소득에 대한 稅額控除를 擴大한다. 이를 통하여 正規근로자의 家庭이 빈곤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소득과 빈곤수준(poverty level)의 소득 사이의 격차를 보전한다. 또한 이와 같은 稅額控除를 時間制 근로자들에게도 적용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

中産層에 대한 租稅의 公平性を 제고한다. 이를 위해 高所得層에 대한 稅額負擔을 강화하고 中産層에 대한 子女稅額控除나 所得稅率 輕減을 실시함으로써 中産層의 稅金負擔을 완화한다.

社會保障制度가 生計維持의 주된 手段이 되는 것을 止揚한다.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2년까지)의 교육, 훈련過程을 거친 뒤 민간기업이나 공공서비스부분의 직업을 가지고 근로에 종사하도록 한다.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家族休暇 및 病暇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의 制定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新生兒나 병든 가족을 보살필 수 있도록 12주 동안의 無給休暇를 提供한다. 이 같은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實施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投資計劃

클린턴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平生教育의 실시, 즉 兒童, 學生 및 근로자 등 인생의 全期間에 걸쳐 교육투자를 실시하는데 있다. 父母들로 하여금 兒童들이 學

校교육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家庭教育의 方法을 개선하게 하고, 學生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갖고 학비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들에게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직업훈련 및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우선 모든 兒童들이 世界水準의 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公立學校의 教育을 改善한다. 數學, 科學 등 핵심과목에 대해 강력한 기준과 국가시험제도를 設立하고 불우학생에 대한 차별대우를 제거하며 학급의 규모를 縮小한다. 모든 父母들에게 그들의 자녀가 다닐 公立學校를 선택할 권한을 주고, 그 대신 학생들이 꾸준히 등교하고, 약물복용을 하지 않는 가운데 졸업할 수 있도록 父母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학교들에 대해 경비요원을 고용하고 금속탐지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各市와 各州의 學校 주변의 범죄빈발지역에는 경찰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退學한 10代靑少年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는 센터를 地域社會에 설치함으로써 退學生들이 자기훈련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業界, 勞動界 및 教育界의 지도자들을 中心으로 國家實習制度(National Apprenticeship System)를 開發함으로써 大學에 진학하지 못한 學生들에게 職業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모든 大學生들이 在學中 學費를 용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의 학생용자계획을 폐지하고 國家信用基金(National Service Trust Fund)을 設立한다. 融資金의 상환방법은 장기에 걸친 소액분할상환이나 1~2年동안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중에서 擇一할 수 있다.

모든 고용주가 종업원 총급여의 1.5%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직업훈련이 간부급 뿐만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근로자들은 숙련기술훈련과 高等學校 卒業狀 획득 및 읽기수업 등 가운데 선택하여 훈련받을 수 있다.

라.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政策方案

현행 美國의 의료제도는 지나치게 費用이 많이들고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政府는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및 의료행정기관의 편의에 치중하는 의료제도를 실시해왔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의료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경제재건의 성공도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政府는 中産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용인하였다. 美國의 제약회사들은 약품가격을 인플레이션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인상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美國의 消費者들은 똑같은 藥品에 대해서 캐나다人或 유럽人보다 최대 6배의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보험회사들로 부터 정당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보험회사들은 행정적인 일에 대규모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12年前 美國의 의료비는 2,490億달러 였던데 비해 92年の 의료비는 8,000億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나라 보다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행 의료제도의 실상인 것이다.

따라서 클린턴은 모든 美國人이 적절한 費用으로 質 좋은 의료서비스를 提供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政策을 推進하기로 하였다.

우선 의료비가 美國人의 平均所得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지 않도록 統制한다. 의료서비스의 消費者와 供給者, 業界, 勞動界 및 政府로 구성된 건강표준국(Health Standards Board)을 設立하여 年間의료예산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핵심수혜패키지(Core Benefits Package)의 윤곽을 정한다.

적절한 費用의 質 좋은 의료서비스는 특전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다. 클린턴의 계획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民間保險이나 良質의 公共保險중에 선택하여 가입하게 될 것이다. 고용주에 의해 의료보험에 加入되지 않은 모든 美國人은 건강표준국이 설정한 핵심수혜패키지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消費者를 보호하고 처방약의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해서 美國人의 所得보다 빠른 속도로 가격을 인상하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稅制上的 不利益을 부과한다.

한편 보험산업의 막강한 로비에 맞서고 막대한 규모에 달하는 보험행정상의 낭비를 막기위해서 보험산업을 合理化한다. 비용을 절감하고 病院의 복잡한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청구서 작성體系를 간소화·합리화 한다.

모든 美國人은 通院치료, 入院치료, 처방약, 기본적인 정신건강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의료수혜패키지를 보장 받게된다. 또 모든 기업들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종업원 1人當 의료비를 공평하게 부담하게 될 것이다.



4. 財政赤字 縮小 方案

클린턴 次期 美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財政赤字縮小 方案의 골자는 대체로 불필요한 財政支出의 축소와 稅收의 확보 그리고 政府의 개혁을 통한 예산의 절감 등으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다. 특히 外國企業 및 부유층에 대한 重課稅를 통하여 稅收을 증대시키는 한편 國防費의 減縮 및 政府의 개혁에 의한 대폭적인 豫算의 절감으로 보다 빠른 속도로 財政赤字를 축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經濟成長의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을 통한 赤字問題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政府 改革의 必要性

클린턴 次期 美 大統領은 현재 침체에 빠져 있는 美國經濟를 다시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고 이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財政赤字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한 各種 政策의 실시를 위해서는 國民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는 政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改革을 추진함으로써 中央政治를 좌우하고 있는 워싱턴 소재의 各種 利益集團과 관리들로부터 國民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納稅額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政府로 부터의 혜택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政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같은 不合理는 現 政府가 모든 현안을 예산의 증가나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의 발주를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므로 向後에는 종래의 上意下達式 문제해결이 아니라 市民과 各 地域社會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부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방법을 통하

여 市民의 훌륭한 提案이 보상받게 하고 불필요한 政策을 없애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政府의 혁신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기존 워싱턴의 중앙정치세력의 既得權을 일소하는 데에도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 次期 大統領은 지난 12年間の 공화당 집권은 높은 보수를 받는 로비스트와 워싱턴의 政商輩들로 하여금 私益의 추구하고 국민대표의 조종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의 결과는 현재 美國이 처하고 있는 각종 經濟的 難關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主要 原因이 되므로 改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政府의 개혁은 각종 經濟問題에 대하여 적절한 政策의 樹立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가 民生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많은 美國民의 진정한 가치와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게 만듦으로써 財政의 낭비를 막고 國民의 稅負擔을 부당하게 늘리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現 行政府가 貯蓄貸付(Savings & Loan) 産業에 대한 규제를 적절한 대책없이 해제함으로써 本 산업이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부담을 納稅者가 져야만 했거나, 政治活動委員會(PAC) 또는 각종 利益集團을 통하여 매주 250萬달러 이상이 議會에 기부됨으로써 現職 議員의 선거전을 매우 유리하게 만들고 있는 현상들을 그 좋은 例로 提示하고 있다.

나. 國防費의 削減

클린턴 次期 美大統領은 냉전의 종식에 따라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軍需産業을 축소하고 民需 위주의 産業으로 전환을 촉진시키는 政策的 基조하에 向後 國防費의 대폭적인 減縮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向後 4年間に 걸친 財政支出 縮小 계획중(表 6 參照) 國防費의 축소는 單一項目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93年 20億 달러, 94年 85億 달러, 95年 105億 달러

그리고 96年 에는 總 165億 달러의 國防費縮小를 계획하고 있는데 總支出 축소분 중에서 國防費의 비중은 매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國防關聯 研究에 대한 보조를 民需關聯 연구로 전환함으로써 經濟回復을 위한 기반확충을 기하고 있는 데 이는 결국 經濟成長이 財政赤字의 축소에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 國防費의 축소 방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駐韓 美軍의 철수계획이 당초보다 빠른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美軍주둔에 대한 費用의 절감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우리나라의 負擔金을 증액시키기 위한 壓力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 稅收의 增大

클린턴 次期 美大統領은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해서는 上記와 같은 지출의 축소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공정한 課稅(Tax Fairness)’의 실현과 法人稅 징수의 강화를 통하여 稅收를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外國 企業에 대한 징수의 강화인데 外國의 現地 法人會社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를 강화함으로써 약 450億 달러의 稅收 증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企業의 脫稅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추가적인 稅收增大를 꾀하자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企業에 대한 징세의 강화는 法人稅 부문의 세수증대분을 약 580億 달러에 달하게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課稅를 이루기위한 방안으로써 부유층에 대한 稅負擔의 증가를 들고 있다. 즉, 年 20萬달러 이상의 高所得者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재의 31%에서 36%로 증가시키고 年 1百萬달러 이상의 高所得者에게 특별 附加所得稅를 부과함으로써 約 920億 달러의 추가적인 稅收增大가 가능한 것

으로 推定하고 있다.

次期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美國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企業의 現地法人에 대한 稅務調査의 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짙으므로 各별한 對策의 樹立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라. 政府部門에 있어서의 구체적 예산절감 方案

클린턴 次期 美대통령은 재정적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美國經濟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다시 성장의 궤도에 進入시킴으로써 자연스러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政策의 수행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개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政府의 改革 자체를 통한 財政支出의 縮小가 요구되는 부문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具體的인 方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적인 의미에서 白堊館의 직원 25%를 감축할 계획이며 議會도 동일한 措置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임.

둘째, 10萬명 규모의 불필요한 聯邦政府官僚職을 자연감축의 방법으로 縮小해 나갈 것임.

셋째, 모든 行政機關에 있어서 公務員 업무비용의 3%를 절감해 나갈 것임.

넷째, 적절하지 않고 낭비적인 모든 財政支出計劃을 撤廢함으로써 國民의 세금이 이익집단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防止하고, 방위용품의 조달및 海外援助에 있어서의 不合理性을 제거할 것임.

다섯째, 政府의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議會에 대하여 項目別 거부권을 요구할 것임.

여섯째, 特定 利益集團을 대변하는 로비스트의 비용에 대한 稅金控除의 철폐를 의회에 요구하며 또한 法律家 출신 로비스트들의 外國政府 및 企業을 대변한 로

비활동의 은폐를 가능하게하는 변호사들의 規程惡用 관행의 撤廢를 議會에 요구할 것임.

일곱째, 클린턴 政府下에 일하는 모든 임명직 公務員에게 직무를 떠난후 5年間 外國機關을 위한 로비스트의 활동을 禁止하도록 선서하게 할 것임. 또한 高位官吏로서는 절대로 外國政府를 위한 로비활동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선서를 하게 할 것이며 議會에 대해서도 똑같은 要求를 할 것임.

여덟째, 모든 個人 및 團體가 정부관리, 의원 및 의원보좌관과의 접촉후 30日 이내에 政府倫理局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임. 本 법안은 로비스트들이 1년에 2번씩 그들의 活動과 費用에 대하여 보고하고 法務部로 하여금 法の 적용과 벌금의 징수를 엄격하게하는 內容을 포함할 것임.

아홉째, 上·下院 선거활동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立法을 추진할 것임. 政治活動委員會(PAC)를 통한 기부는 個人別로 1,000달러로 제한될 것이며 방송비용을 낮춤으로서 TV를 政治的 공격이 아닌 教育的인 道具로 사용하게 할 것임. 또한 議會의 각종 委員會에 등장하는 로비스트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부한 基金內譯을 밝히게 할 것임.

마. 向後的 財政赤字 縮小 展望

이상과 같은 클린턴 次期 美대통령의 財政赤字 縮小方案을 종합하면 아래의 <表 4>와 같다. 즉, 클린턴 次期 大統領의 계획에 의하면 經濟의 활성화 등을 위한 財政支出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93年 約 419億 달러, 94年 543億 달러, 95年 591億 달러 그리고 96年 約 641億 달러의 추가적인 적자 확대의 要因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政府의 개혁을 통한 예산절감, 國防費減縮 그리고 公正課稅를 통한 稅收増大를 통하여 동기간 동안 지출의 대폭적인 縮小를 전망하고 있다. 즉, 93年의 約 578億 달러, 94年の 705億 달러, 95年の 770億 달러 그리고 96年の 894

億 달러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만 제대로 수행된다면 毎年 170億 달러 가량의 財政赤字 해소가 가능하다는 推算이 가능하며 96年 한해에만 約 250億 달러의 財政赤字가 縮小되는 것이다.

〈表 4〉

財政赤字 縮小計劃

(10億 달러)

	1993	1994	1995	1996
支出増大項目				
經濟活性化 計劃	28.3	34.6	35.4	35.4
經濟活動人口에 대한 支援	3.5	5.5	6.5	7.0
平生教育 支援	10.1	14.25	17.27	21.7
總 計	41.9	54.35	59.17	64.1
支出縮小項目				
費用縮小	26.09	32.42	36.81	44.98
Entitlement Reform	0.6	1.0	1.0	1.8
公正課稅	19.8	22.7	23.9	25.3
企業의 脫稅防止	11.3	14.4	15.3	17.3
總 計	57.79	70.52	77.01	89.38

그러나 클린턴 차기 美대통령은 이보다 훨씬 낙관적인 見解를 갖고 있는데 이는 새 行政府의 經濟政策이 성공할 경우 美國의 經濟가 재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稅收의 증대등으로 하여 財政赤字가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表 5〉

向後 財政赤字 推移

(10億 달러)

	1993	1994	1995	1996
現在 趨勢 ¹⁾	323.0	268.0	212.0	193.0
보통의 成長率 時	295.7	243.0	174.0	141.0
높은 成長率 時	282.6	207.02	125.54	75.84

註: 1) 議會 豫算局 推定值임.

〈表 5〉에서 나타나 있듯이, 美國이 평균적인 成長率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추세보다 250億 내지 350億, 96년에는 500億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財政赤字

〈表 6〉 細部項目別 支出 縮小 計劃

(10億 달러)

	1993	1994	1995	1996
支出縮小 項目	2.0	8.5	10.5	16.5
國防費 削減	1.0	1.5	1.5	1.5
情報費 削減	2.0	5.0	6.5	8.5
行政費用의 削減	2.0	4.3	4.5	4.5
100,000 聯邦職員 減縮	0.01	0.01	0.01	0.01
白堊館 직원 감축	0.0	2.0	2.0	2.0
負債調達上の 改善	0.1	0.1	0.1	0.1
議會人員 삭감				
項目別 거부권에 의한 豫算의 삭감	3.8	2.0	2.0	2.0
國防省 조달상의 개선을 통한 豫算 절감	5.7	0.0	0.0	0.0
國防省 재고조사상의 改善을 통한 豫算 절감	2.3	2.5	2.5	2.5
종합적인 政府部處의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한 豫算 절감	0.0	0.85	0.85	0.85
政府支援에 의한 大學의 研究作業에 있어서 불필요한 人員의 縮小	0.73	0.76	0.79	0.82
美 농무성 地域事務所의 流動化	0.035	0.075	0.13	0.14
特殊目的을 위한 주택성의 支援 縮小	0.12	0.12	0.13	0.13
核廢棄物 처리비용의 인플레이션 連繫	0.02	0.04	0.06	0.08
鐵道 유지보수상의 改善	4.0	4.0	4.5	4.6
養蜂業者에 대한 支援의 撤廢	0.02	0.02	0.0	0.0
海外放送의 統合에 의한 豫算의 절감	0.08	0.18	0.26	0.27
聯邦業務에 대한 諮問費用의 동결	0.17	0.19	0.21	0.21
社會福祉 서비스 프로그램의 統合	0.0	0.27	0.27	0.27
對外 援助上の 改善	2.0	0.0	0.0	0.0
總計	26.09	32.42	36.81	44.98

字 縮小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次期 집권기간 동안 평균이상의 經濟成長이 가능하다면 훨씬 더 대폭적인 赤字의 減縮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向後 美國의 財政赤字의 해소 문제는 결국 美國經濟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생이 가능할 것인가에 좌우한다는 判斷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表 7〉 公正 課稅

	1993	1994	1995	1996
上位 2% 所得階層에 대한 重課稅	17.8	20.5	21.6	23.0
부유층의 非勤勞 所得에 대한 脫稅防止	2.0	2.2	2.3	2.3
總 計	19.8	22.7	23.9	25.3

〈表 8〉 企業의 脫稅防止

	1993	1994	1995	1996
最高經營層(CEO)에 대한 稅金控除를 100萬弗로 제한	0.1	0.4	0.4	0.4
海外工場 設立에 대한 特惠 中止	0.3	0.4	0.4	0.4
外國企業의 脫稅防止	9.0	11.0	11.5	13.5
環境汚染企業에 대한 罰金및 稅金増大	1.8	2.5	2.9	2.9
로비資金에 대한 稅金控除의 撤廢	0.1	0.1	0.1	0.1
總 計	11.3	14.4	15.3	17.3

5. 對外經濟政策

가. 通商政策의 基調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自由貿易主義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失業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의 하나로서 수출증대를 강조하며, 交易相對國의 공정한 무역관행과 시장접근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不公正한 貿易慣行이 존재하고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경한 通商政策을 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수출이 10억달러 증가될 경우 평균 2~3만명의 雇傭創出 效果가 있을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므로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교역상대국 市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히 對美 흑자국에 대하여 다각도로 通商壓力을 加重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클린턴은 대통령직속의 經濟安保委員會(Economic Security Council)를 신설하여 國家安保委員會(National Security Council)와 대등한 위상을 갖게함으로써 對外通商政策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는 상무부와 美무역대표부의 통상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일본의 통산성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므로 이 경우 美무역대표부의 조직개편이 불가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海外公館의 통상협력기능 강화 등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나. 雙務的 通商壓力

클린턴은 또한 交易相對國의 不公正貿易慣行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90년에 효력이 소멸된 수퍼 301條를 부활시켜 더욱 강화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강력하고 保護主義的인 通商法이므로, EC와 日本 등 미국

의 주요 교역상대국들로 부터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은 그동안 미국에 대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日本과 中國을 비난해 왔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管理貿易(Managed Trade)의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最惠國待遇(MFN)를 철회할 가능성도 비치고 있다. 그는 또한 조선업과 우주항공산업에 있어서의 補助金問題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日本과 韓國의 조선업, 그리고 EC의 우주항공산업이 通商壓力의 주요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 우루과이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클린턴은 일반적으로 成功的인 妥結을 지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정확한 입장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EC와의 農産物協商에서 부시행정부 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클린턴의 대통령 취임전에 부시行政府에 의해 우루과이라운드가 妥結된다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협상 결과에 대한 번복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威信墜落과 그것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보완을 전제로 부시妥協案을 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대통령 취임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農産物 등에 있어서 타국의 양보를 좀더 얻어내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간의 협상진전내용을 백지화하기 보다는 UR타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협상팀의 구성 등이 필요하고 迅速協商處理權限(Fast-Track Authority)의 연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UR타결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北美自由貿易協定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에 대해서는 그것의 기본취지를 지지하는 입장이
나, 그로인한 미국내 失業增加와 環境汚染問題가 해결되도록 협정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NAFTA의 最終妥結도 遲延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
겠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환경보호와 관련된 부문에 대한 투자,
그리고 농민에 대한 지원 등을 附隨協定(Side Agreement)에 반영키 위하여, 카나
다, 멕시코와 3者協商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완은 국가간
에 협상문을 만들어 해결하기 보다는 주로 國內 執行過程에서 이루어 질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 外國人投資 및 外國企業에 대한 稅務查察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미국 尖端技術産業體의 매수가 미국의 국제경쟁력에 악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美議會가 外國人投資를 금
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Exon-Florio法의 시행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
제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 미국내의 子會社들이 해외에 재투자 할 경우에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課稅가 유예되고 있으므로, 클린턴은 이 제도로 인하여
外國人投資가 미국시장을 떠나고 美國민은 일자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내의 상당수 외국기업들이 會計帳簿를
조작해 이익을 누락시켜 脫稅하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는 바, 이들의 과세부담을
늘이기 위한 稅務查察 強化 및 移轉價格 規制를 추진할 것이다.

바. 앞으로의 通商政策方向

그러나 클린턴은 NAFTA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하며 超強硬立場을 보이고 있는 게파르트 下院民主黨 院內總務의 의견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民主黨內에서는 온건파로 불리우고 있다. 따라서 급격한 對外通商政策 變化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정확한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키 위해서는 그의 통상관련 실무진 인선과 의회관리 방향 등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6. 韓國經濟와의 關聯事項

가. 公正貿易原則의 遵守

이와 같이 클린턴의 對外通商政策이 부시행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미국의 市場開放 壓力도 함께 加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퍼 301條의 통상법이 부활되고 더욱 강화된다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받은 국가들에 대하여 不公正貿易 行爲에 대한 보복조치 등이 예상된다. 또한 클린턴은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環境關聯 規制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상품의 對美輸出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自動車 燃比效率提高法이 통과되고 (클린턴은 1갤론당 45마일을 주장) 자동차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 오염 허용치가 보다 엄격해 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산자동차의 燃比효율제고 노력이 시급하다. 클린턴은 그동안 外國의 造船補助金에 대해서도 이를 불공정행위라고 간주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조선국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클린턴은 국방예산의 대규모 삭감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駐韓美軍의 추가적인 철수가 있거나 駐韓美軍 駐屯費用의 한국측 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경제에 또다른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나. UR(우루과이라운드) 관련 分野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도 클린턴은 부시보다 강경한 입장이며 특히 EC와의 農産物協商에서 보다 강경하게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들 것이므로, 그 여파가 우리에게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또한 韓·美 通商懸案 중 그들의 주

요관심분야인 金融市場開放과 知的所有權 保護問題에 있어서 對韓通商壓力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우리의 금융시장개방 일정을 앞당겨 줄 것과 知的所有權 保護와 관련하여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단속과 처벌강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 肯定的인 側面

그러나 클린턴의 당선으로 인한 美國의 經濟政策變化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韓·美 兩國은 최근 비교적 원만한 통상관계를 유지해왔고, 兩國間 貿易收支가 대략 균형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우리가 3억 달러 이상의 累計赤字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막대한 對美貿易黑字를 기록하고 있는 日本과 中國에 가해질 압력에 비교해 볼 때 미국이 韓國市場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通商壓力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선거유세 중에도 클린턴은 對外通商問題와 관련해서 주로 일본과 EC 및 중국을 비난해 왔고, 한국을 직접 거론한 적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通商壓力을 가하여 일본과 중국의 對美輸出에 지장이 온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상품의 對美輸出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만약 클린턴의 景氣浮揚策이 성공하여 미국경기가 되살아 난다면 우리의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7. 우리의 對應方案

가. 美 政權교체기 상황에 대한 理解

美國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정부의 정책방향의 확정을 위해 광범위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또한 政權 인계·인수절차 자체가 新·舊政府의 주요인사들과 실무자들을 총망라한 거국적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美國政府의 對內外 政策이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大原則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의 結果가 對內政策의 신속한 변화를 요구할 때에는 사정이 다르다. 特히 景氣부양책등이 시급할 때에는 對內政策수단을 총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의 例로 볼때 對外政策기조에 있어서는 일관성 유지가 우선이다. 美國의 對外政策은 國內여론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先·後進國을 망라한 사실상 세계전체의 潮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主要國들과 맺은 協約사항은 거의 不變으로 지속되는 것이 관례이며 더욱이 이번 교체기에는 부시大統領이 이루어 놓은 國際關係업적을 대폭 인정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일 것 같다.

클린턴政府의 對外經濟政策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세가지 분야가 있다면 NAFTA 관련 정책, 對日通商政策, 그리고 UR에 對한 姿勢등을 꼽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도 부시大統領이 이미 제시한 大原則은 그대로 존속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關聯國家들을 상대로 한 협상의 속도 및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정권교체기의 상황을 민첩하게 파악하여 對內外的政策에서 新政府에게 협조해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협조를 미리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나. 民主黨政府의 經濟政策的 특징 감안

이번 선거에서 經濟改革을 희구하는 美國民의 所望이 강력하게 表出되었으므로 신임대통령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美國經濟의 活力제고를 위한 새 정책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共和黨정부의 정책적 노선이 보수적이고 企業中心이며 中産層以上을 겨냥하고 있는데 반하여, 民主黨정부는 진보적이고 政府의 역할을 중시하며 低所得層의 복지에 주력하는 정책노선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1961년 케네디 대통령(民主黨)이 집권했을때 對內經濟에 있어서 두가지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나는 經濟에 活力을 불어넣기 위해 政府의 적극적인 介入을 선언했고, 또하나의 성장저조 현상이 불합리한 租稅제도에 있다고 보고 減稅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一政府의 介入

- 「새출발하는 美國(Get the country moving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통령경제자문기구(CEA)의 역할을 강화
- 실현 GNP와 잠재 GNP의 새로운 개념 도입
- 잠재 GNP 달성을 위한 제반 재정·화폐정책 실시

一減稅조치

- 個人소득세 및 법인세 대폭 삭감 (個人소득세의 경우 세율범위 20~91%에서 14~65%로 감축)
- 1964~65년 약 140억달러의 세금감축으로 약 1%의 실질 GNP증가효과 유도

1977년 카터대통령(民主黨)이 들어서자 먼저 國內失業問題(실업율 6.9%)를 해결해야하는 당위성에 직면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카터는 즉각적으로 3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감세조치(1인당 감세액 50달러)를 비롯해서 긴급 財政 및 産業政策을 수립했다.

—고용증대정책

- 감세조치를 통한 소비증대 및 경기활성화
- 만성적 失業群인 비숙련 · 저소득층 노동력을 위한 직업훈련정책

—산업합리화 정책

- 경쟁을 유도하기위해 규제가 심한 각종 산업의 자율화 추진 (例:항공 · 운수 산업의 자율화)

이상에서 보듯이 民主黨의 經濟政策은 주로 정부의 財政政策에 의한 경기부양, 실업감소 및 産業合理化에 力點을 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民主黨 정권의 일반적 정책노선을 간파하여 우리政府는 집권초기에 투자협력단 혹은 구매사 절단을 파견하여 미국의 국내 경기회복에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다. 韓 · 美間 通商懸案과 對應課題

최근 韓 · 美間 貿易收支는 대략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미국으로부터의 通商壓力이 일본의 경우와 같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企業環境改善方案(PEI) 등과 같이 양국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履行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自由貿易原則 遵守의 意志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신뢰성을 지킴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對韓通商壓力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특히 投資 및 技術移轉 분야 등과 같이 양국에게 互惠的인 분야에 있어서의 相互協力方案을 적극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며, 韓 · 美間

의 主要懸案인 金融과 知的所有權 등 미측의 주요관심분야에 대하여 적절한 改善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多者間 協商에 적극 參與

우루과이라운드 등의 多者間 協商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自由貿易主義에 대한 신념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쌀市場 開放의 어려움에 대하여 美側의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쌀을 제외한 農産物과 金融을 포함한 서비스市場開放은 UR의 성패와 관계없이 UR에서의 약속수준에 맞게 履行計劃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UR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APEC體制內에서 추가적인 貿易自由化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추후 多者間 體制의 強化와 연결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 對美經濟弘報 強化

그동안 추진해온 우리의 市場開放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적극 홍보하는 등 對美 經濟弘報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韓國經濟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韓·美間 貿易收支 現況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PEI의 成果를 홍보하고 앞으로의 兩國間 通商協力 增進方案 등을 제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通商政策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韓國經濟와 日本經濟의 차이점을 적극 홍보하여 韓國이 제 2의 일본으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對日通商壓力의 불뚝이 우리에게 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바. 議會次元의 外交強化

美議會의 保護主義的인 통상관련 立法可能性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美議會의 동정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美議會에 대한 經濟弘報를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韓·美 경제관계에 관심이 있는 兩國 議員들간의 합동회의 혹은 교환방문 등을 통하여 兩國間 議員外交를 강화해야 되며, 또한 통상관련 입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美議會 主要常任委員會의 立法輔佐官들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우리企業의 對應

한편 美國進出 企業들도 예상되는 美國의 通商政策 變化에 대비해야 할 것인데, 우선 美國政府의 稅務査察 강화나 增稅에 대비해서 美國內의 유명 회계법인이나 변호사 등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생산기술향상을 통한 品質改善에 노력하는 한편, 美國의 對日本, 對中國 通商壓力이 가중될 경우 우리의 對美輸出을 신속하게 증대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역시 우리상품의 國際競爭力을 제고시키고, 수출시장을 다변화시켜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 판단된다.



附 錄



附錄 A : Bush와 Clinton의 經濟政策 比較

—Bush 대통령은 미국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므로 정부는 가능한 한 간섭을 피하며 市場經濟原理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 따라서 稅金減免, 政府支出縮小, 行政規制緩和 등을 통한 작은 정부를 지향. 다만 급격한 경제환경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

○ 일시적인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減稅措置와 低金利政策의 사용을 주장

○ 政府支出 縮小로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

○ 근본적으로 自由貿易主義의 신봉자이고 汎世界主義(Globalism)가 최선의 통상정책이라고 주장하며 自由貿易協定の 擴大를 모색하고 있으며, UR의 성공적 타결과 NAFTA의 議會批准을 위하여 적극 노력

—클린턴은 미국경제가 심각한 不況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며 政府가 支出을 增加시키는 등 적극 개입하여 경기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 클린턴의 경제브레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하바드대학의 Robert Reich교수는 “국민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政府의 役割擴大를 강조하고 있음.

○ 경기부활책으로서 公共部門 投資擴大 등의 政府支出 増大와 産業政策의 적극활용을 주장

○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지출은 계속 증가시키면서, 대규모의 國防費 削減과 高所得層 및 外國企業에 대한 稅金重課로 稅收擴大를 통한 방법 사용을 주장

○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국내 고용증대를 위하여 수출촉진정책과 交易相對國의 不公正貿易慣行에 대한 報復措置를 주장하

는 등 강경한 입장이므로 UR의 타결과 NAFTA의 최종타결 등이 遲延될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 타결되면 議會批准은 오히려 容易할 것으로 보임.

1) 國內經濟政策 比較

Bush

Clinton

景氣沈滯 打開策

一 減稅措置와 低金利政策을 사용

- 소비자 구매심리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소득에 대한 源泉徵收稅率 引下
-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설비 투자시 減價償却額 擴大와 연구 개발비에 대한 재정지원 및 稅額 控除
- 부동산 불황타개를 위해 資本利得稅率 引下, 주택구입시 稅額控除, 年金基金의 不動產 買入 허용
- 경기부양을 위한 低金利政策 지속과 金融制度 效率化를 위한 포괄적 金融改革 추진
- 도시 빈민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Enterprise Zone을 설치하고 同地域에 대한 投資에 대해서는 稅制優待措置

一 公共部門 投資擴大와 產業政策을 적극 사용

- 고속전철, 도로 등의 輸送施設의 建設・改良과 全國情報網 構築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확대로 雇傭機會 創出
- 방위산업 감축에 따라 2억 달러의 방위산업 研究開發費를 民需産業으로 轉換
-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생물공학, 로봇공학, 고속컴퓨터, 환경기술 촉진을 위한 研究機關 設立
- 冒險産業(Venture Capital)의 비용절감 및 企業間 結合을 장려하기 위해 獨占禁止法 緩和
-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과 근로자 재교육, 직업교육 강화
- 도시 빈민지역 개발을 위한 同地域內의 小企業에 대한 지역 개발은행의 融資措置 검토

Bush

Clinton

財政赤字 縮小案

均衡豫算法 制定을 위한 헌법 개정 지
지
政府支出 縮小로 재정적자를 향후 5年
間 3,000억 달러 감축
○국방비를 향후 6年間 500억달러 감축
○정부기관 定員 凍結 및 年俸 75,000달
러 이상의 高位官吏들의 年俸 削減
○의회와 백악관 예산의 33% 삭감을 제
안

—均衡豫算法案 반대
—대규모의 국방비 감축과 高所得層 및
外國企業에 대한 税金 重課로 재정적자
를 96년까지 1,410억달러로 축소
○국방예산을 97년까지 현재의 36%(1,500억
달러) 이상 削減
○上位 2%의 富裕層에 대한 增稅로 향
후 4年間 1,500억달러의 稅收增加 계
획

環境 및 에너지 政策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을 적극 지원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업체에 대한 稅
金 引下
○알래스카 國立公園內에서의 試錐 및 石
油開發 지지
에탄올 등의 代替에너지 개발
자동차 燃比效率提高法 제정 반대

—핵에너지생산을 축소하는 대신 再使用
가능한 에너지源 개발확대를 지지
—자동차 燃比效率提高法 지지(겔론당 45마
일)
—지구 温暖化現狀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이산화탄소 허용치 감소를
지지

國 防

25%의 군사력 축소와 향후 6年間 500억
달러의 國防豫算 削減 계획
SDI 프로그램 지지
축소된 규모의 B-2爆擊機 생산 지지

—향후 6年間 1,000억달러의 國防 豫算 削
減 계획
—SDI 프로그램은 지지하나 B-2爆擊機
생산은 반대

2) 對外貿易政策 比較

Bush	Clinton
------	---------

우루과이라운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루과이라운드의 成功的인 妥結을 적극 지원하는 입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으로 UR의 成功的 妥結을 지지하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음 ○EC와의 UR협상에서 農産物문제에 대해 공화당 정부보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임 |
|---|--|

北美自由貿易協定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FTA는 부시행정부의 自由貿易主義 정책의 중요한 治績으로 강조하며 議會·批准을 얻기 위하여 노력중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FTA의 기본취지는 지지하는 입장이나, 이로 인한 美國內 失業增加와 環境汚染問題가 해결되도록 修正을 가하겠다는 입장 ○특히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勞組의 반대가 강력함을 인식 |
|--|--|

對中國 貿易政策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中國에 대한 最惠國待遇를 연장해 주는 등 우호적인 입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내의 人權問題 등을 이유로 中國에 대한 最惠國待遇를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 |
|---|---|

Bush

Clinton

通商政策 方向

UR의 成敗와 관계없이 汎世界主義(Globalism)가 최선의 통상정책이라고 주장하며, 自由貿易協定을 中南美, 東歐圈 그리고 太平洋地域國家와도 擴大하겠다는 계획

○태평양지역국가와의 자유무역 협정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나, 韓國과 日本은 現存하고 있는 非關稅障壁 때문에 시기상조임을 지적

—자유무역확대를 지지하지만 交易相對國의 不公正貿易慣行에 대해서는 報復措置를 주장하는 등 Bush보다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

○수퍼 301條의 부활 및 강화를 주장

○특히 對日本 통상정책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

○유럽의 우주항공산업과 韓國과 日本의 造船業에 있어서의 補助金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미국의 수출이 10억달러 증가되면 2~3만명의 雇傭創出 效果가 있음을 주장

○交易相對國의 市場接近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직속의 經濟安保委員會(Economic Security Council)의 신설, 美貿易代表部의 구조개편 그리고 大使館의 通商協力 機能 強化 등을 제안

附錄 B : 豫想되는 閣僚의 名單 및 性向

—내년 1월 20일 大統領 就任에 앞서 클린턴 大統領 當選者는 향후 약 11주동안 政權引受作業과 高位官吏의 人選作業을 해야 함.

○政權引受作業은 選舉對策委員長이었던 미키 칸터(Mickey Kantor)가 이끄는 수백명의 정권인수팀에 의하여 政府 各 機關의 現況把握과 現職官吏들로부터의 브리핑을 받는 등 圓滑한 政權交替를 준비함.

○새로운 정부출범으로, 16개 각료직, 백악관 참모진, 외국주재대사를 비롯한 수천명의 高位官吏가 民主黨內 主要人士 및 選舉參謀陣으로부터 새로이 선출될 것으로 보임.

—國務長官 : 위렌 크리스토퍼 前國務副長官, 스티븐 솔라즈 前下院議員, 리 해밀턴 下院議員 등이 유망함. 그밖에 조지 미첼 上院民主黨 院內總務와 데이브 매커디 下院 情報特委委員長 등도 거론되고 있음.

○위렌 크리스토퍼 : 카터 行政府시절 國務副長官을 역임.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 개업중. 이번 大統領 선거기간중 수석고문. 온화하며 신중한 성격

○스티븐 솔라즈(1940-) : 1975년부터 下院議員(뉴욕). 下院 外交委員會 亞太小委委員長 역임. 금년도 下院議員 예비선거에서 낙선. 韓國問題에도 큰 關心

○리 해밀턴(1931-) : 1965년부터 下院議員(인디애나). 상하 兩院 合同經濟委員會 副委員長. 차기 하원외교위원장 내정자로 알려지고 있음.

—國防長官 : 샘 닐 上院軍事委員長, 레스 아스핀 下院軍事委員長 등이 유력함. 그밖에 윌리엄 크로 前合參議長 등도 거론되고 있음.

○샘 닐(1938-) : 1972년부터 上院議員(조지아). 上院 軍事委員會 委員長.

경험이 풍부하고 軍部와의 關係 좋음.

- 레스 아스핀(1938-) : 1971년부터 下院議員(위스콘신). 下院 軍事委員會委員長. 軍事問題專門家이나 군부가 기피할 가능성도 있음.

財務長官 : 로저 알트만과 로버트 루빈 등이 유력함.

- 로저 알트만 : 투자은행인 블랙스톤 그룹의 投資相談役. 클린턴의 조지타운대학시절부터의 친구이며, 카터 행정부시절 재무부 차관보로서 클라이슬러사의 도산을 막는데 크게 기여함. 財政赤字 減縮을 강력히 주장함.
- 로버트 루빈 : 投資會社인 골드만 삭스社의 會長. 선거운동중 선거자금 마련에 크게 기여
- 폴 볼커 : 前 聯邦準備制度理事會(FRB)議長을 역임했으며 현재 프린스턴 대학 교수. 재무장관 기용설에 불참의사를 표명했음.

商務長官 : 존 스컬리, 마이크 월시, 존 영 등 企業家들이 거명되고 있음.

- 존 스컬리 : 애플컴퓨터社의 社長
- 존 영 : 휴렛 팩커드社의 會長
- 마이크 월시 : 테네코社의 社長

白堊館 參謀

- ① 秘書室長 : 캔터 政權引受팀 팀장이 유력하며, 브루스 린지, 메시 라이트 등 選舉參謀들도 거명되고 있음.
- ② 代 辯 人 : 옥스퍼드 大學 유학동기이며, 이번 선거에서 弘報責任者였던 조지 스테파노폴로스가 유력함.
- ③ 經濟諮問委員會(CEA)議長 : 로버트 라이히 하버드大 教授가 유력함.
 - 로버트 라이히 : 하버드大學 教授. 카터 行政府시절 聯邦去來委員會(FTC)의 政策企劃局 局長역임. 「The Work of Nations」 등 저서로 클린턴 經濟政策의 基礎 제공
- ④ 行政管理豫算局(OMB)局長 : 로버트 샤피로 「進歩政策研究所(Progressive

Policy Institute)」副所長, 제임스 존스 증권거래소(SEC)이사장과 레온 파네타 下院 豫算委員長 등이 거명되고 있음. 모두 支出削減과 租稅增加를 통한 赤字減縮을 지지함.

⑤ 貿易代表(USTR) : 폴라 스티븐 前 ITC 위원장이 유력함. 그밖에 앨런 울프 前 USTR부대표, 존 스컬리 애플사 회장 등도 거명되고 있음.

○폴라 스티븐(女) : 美 國際貿易委員會(USITC)의 위원장 역임. 이번 선거 기간중 GATT와 NAFTA 등 對外貿易問題에 관하여 클린턴 후보를 보좌하였으며 自由貿易 신봉자로 알려지고 있음.

⑥ 國家安保擔當輔佐官 : 리차드 홀브르크 前 次官補, 새뮤얼 버거변호사, 앤소니 레이커 마운트 홀리욕대학 교수 및 데이비드 아론 前 副輔佐官 등이 유력함.

○리차드 홀브르크 : 카터행정부 시절 국무부 東아시아·太平洋 擔當次官補 역임. 원만한 정책수행

○데이비드 아론 : 前 白堊館 安保擔當 副輔佐官

—中央情報局(CIA)局長 : 보브 인맨 前 海軍提督이 유력함.

○보브 인맨 : 해군제독으로서 CIA副局長을 역임함.

○데이브 맥커디(1950-) : 1981년부터 下院議員(오클라호마). 下院 情報特別委員會 委員長

—經濟安保委員會(ESC) 委員長 : CEA議長에 선택되지 않을 경우 로버트 라이히 교수가 가장 유력함. 강력한 產業政策 주창자이며 이번 선거중 經濟部門 參謀였던 아이라 매거지너 등이 거명되고 있음.

附錄 C: 次期 美國大統領 Bill Clinton의 略歷

成長背景 :

- 1946년 8월 19일 미국 알칸소주 Hope에서 출생
- 출생시 原名은 William Jefferson Blythe 4세
- 5대째 알칸소주에서 주거해온 전형적인 南部가정 출신
- 출생 2개월전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
- 4세때 모친이 자동차 販賣商이었던 Roger Clinton과 재혼, 핫 스프링스市로 移住, 그곳에서 소년시절을 보내고 공립고등학교를 졸업

學 歷 :

- 조지타운大學에서 外交學을 전공하고 1968년 졸업
- Rhodes 장학생으로 英國의 옥스포드大學에서 修學
- 1972年 예일法大 졸업

經 歷 :

- 알칸소 州立大學에서 法學 講義, 1972~76
- 1974年 下院議員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
- 1976年 알칸소주 법무장관에 당선
- 1978年 32세의 약관에 알칸소州知事に 당선
- 1980年 州知事 再選에 실패
- 1982年 州知事 선거에 재도전, 당선
- 1984, 1986, 1990年 州知事 再選에 성공, 5選 州知事

家 庭 :

- 부인 Hillary Clinton女史와는 예일法大에서 만나 1975年 결혼
- Hillary女史는 시카고 출신으로 婚前 姓名은 Hillary Rodham. 미국의 上位 100명의 변호사명단에 오르는 유능한 변호사. 미국의 教育制度 改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社會活動을 해왔음.
- 슬하에 외동딸인 Chelsea를 두고 있음.

附錄 D: 次期 美國 副統領 Albert Gore 2세의 略歷

成長過程 :

- 1948. 3. 31 워싱턴 D.C.에서 出生
- 父親인 Albert Gore도 테네시州 출신 美上院議員

學 歷 :

- 1969년 하바드大學을 우등으로 卒業
- 1976년 밴더빌트 法大 卒業

經 歷 :

- 1969 ~ 71 美육군 복무기간중 越南戰 參戰
- 1977 ~ 85 美下院議員
- 1985 ~ 現在 美上院議員
- 1988年 民主黨 大統領 候補로 출마했으나 예비선거에서 3등으로
고배

家 庭 : - 부인인 Tipper Aitcheson과의 사이에 4자녀를 둠

主要關心分野 : 環境問題와 尖端技術 分野

主要著書 : Earth in the Balance : Ecology and the Human Spirit

KIEP 發刊資料 案內

■ 政策研究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金學洙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閔充基
90-03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90.05)	金宗萬
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孫讚鉉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前略 ('90.06)	金泰俊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産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柳在元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金學洙
90-08	美國通常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金南斗
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 ('90.10)	張義泰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徐相祿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姜興九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金宗萬
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金廷洙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李長榮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吳勇錫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朴濟勳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金時中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李相學
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曹琮和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 變化와 對應方案 ('91.05)	閔充基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金學洙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和 生産性の 國際比較 ('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産業政策과 産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金迪教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現況과 改善方向 ('92.02)	共同
92-03	統獨 1年의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①	俞鎮守
	日本의 貿易障壁 ('92.03)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1]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2]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3]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2]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1-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4]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5]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6]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4]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5]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7]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8]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朴泰鎬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92.10)	共 同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金昌男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 同
90-02	1990年代 國際 經濟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 同
90-03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協商的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侑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1.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 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政策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 同

■ 세미나資料

・ EC統合과 政策對應 ('90.1)	共 同
・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4)	朴泰鎬 編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6)	吳勇錫 編
・ Jang -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2)	閔充基 編
・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9)	
・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91.12)	
・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6)	

政策資料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1992年 11月 6日 印刷

1992年 11月 7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 江南區 大峙3洞 942番地 해성빌딩 18-19층

電話 : 528-3333, FAX : 528-3311, 3322

登錄 : 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 本 報 告 書 內 容 의 無 斷 轉 載 · 譯 載 · 複 寫 書 禁 止